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2호 【루게 제25195호】 주제 105 (2016)년 2월 21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 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받아안은 우리군대와 인민이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로 당 제7차 대회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격해나아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인민군대에서는 드높은 훈련열의로 전군이 용암처럼 끓으며 훈련의 날과 날을 이어가고있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 사이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쌍방실동훈련이 3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였다.

훈련에서 조선인민군 제91수도방어군단관하 부대들은 방어전투임무를, 조



기동로를 지배하고 있는 지탱점들을 습격, 장악하면서 차단물들에 대한 공병정찰을 진행하고 전진보장구분대들을 진출시키였다.

조선인민군 제91수도방어군단에서는 3개의 주요방향들에 설치한 차단물들을 전투상태로 이전시키고 차단물통로를 개설하려는 전진보장구분대들의 전투행동을 구속하는 한편 차단물계선으로 진출하거나 그곳에서 멈추어진 기계화중대들을 반장갑집중화력타격으로 소멸하는 전투행동을 진행하였다.

주요지탱점들을 타격하기 위해 날아들던 무장직송기들이 휴대용공사

선인민군 제105땅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관하 부대들은 공격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3방향전방지휘소에서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며 다른 2개 방향에서의 훈련은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훈련장에서 인민무력부장인 북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북군대장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북군중장 팀광일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북군중장 조남진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전투훈련국장인 북군중장 방관복동지, 조선인민군 제91수도방어군단장인 북군중장 김명남동지, 정치위원 북군소장 김도운동지,

조선인민군 제815기계화보병사단장인 북군중장 고명수동지, 정치위원 북군소장 주송남동지가 맞이하였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공병지휘관들, 각급 군사학교 교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훈련은 부대들 사이의 차단물설비 및 국북을 위한 쌍방실동훈련을 통하여 공격과 방어작전능력을 확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 대책을 세움으로써 혁명의 수도 평양을 적들의 그 어떤

침공으로부터도 믿음직하게 사수하기 위한 작전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쌍방실동훈련은 정찰기들로 주요도로에 대한 정찰행동과 지탱점들에 대한 드센 화력타격을 들이대는 것으로 시작되였다.

기계화련합부대들은 경보병구분대들로

로켓의 명중사격에 산산이 부서졌으며 각종 포들의 일제사격으로 직송기륙전대착륙구역이 초토화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포탄들이 목표들을 통과하게 명중시키는 것을 보시고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치하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포병저격수라는 말이 나올것이라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 사이의 쌍방실동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차단물통로를 신속히 개설하고 타격대들로 차단물계선을 극복하면서 공격성과를 확대하려는 기계화련합부대들의 파감한 전투행동과 견고하게 설비한 차단물들

에 의거하여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공격을 저지시키는 련합부대들의 완강한 방어로 하여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훈련장은 불도가니마냥 새차게 끓어번지였다.

훈련은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해치려고 피를 물고 날뛰면서 하늘에 대고 샅대질을 해대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매달려 죽을지 살지 모르고 너털거리고있는 원수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무자비하게 죽려쳐버리고 야말 인민군장병들의 치솟는 증오와 천백

배의 복수심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쌍방실동 훈련의 우결함을 평가, 지적하시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새차게 일으킴으로써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판, 참모부 일군들의 주도성과 자립성, 창발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싸움마당에서 군인들을 승리로 불러일으킬수 있게 당정치사업을 전쟁환경에 접근시키는데 대한 문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훈련강령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훈련총화를 전투총화처럼 엄격히 진행할데 대한 문제, 천연요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훈련을 통하여 치렬하고 엄혹하며 맹목한 전쟁에서 견고한 방어를 조직할수 있게 미리 준비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부글 부글 끓고있는데 맞게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새차게 일으킴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전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제 인민군장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총대로 담보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서 자랑찬 공공을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맞게 작전과 전투를 능숙히 지휘할수 있도록 지휘

관, 참모부 일군들의 주도성과 자립성, 창발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싸움마당에서 군인들을 승리로 불러일으킬수 있게 당정치사업을 전쟁환경에 접근시키는데 대한 문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훈련강령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훈련총화를 전투총화처럼 엄격히 진행할데 대한 문제, 천연요

세를 이루고있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임의의 계선에서 견고한 방어를 조직할수 있게 미리 준비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부글 부글 끓고있는데 맞게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새차게 일으킴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전투력강화와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제 인민군장병들이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총대로 담보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수호전에서 자랑찬 공공을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맞게 작전과 전투를 능숙히 지휘할수 있도록 지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 비행 훈련을 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 비행훈련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 기종의 전투기들을 불의에 도로비행장에 호출하시고 현지에서 전투비행사들의 비행술을 관정검열하시였다.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중장 림팡일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육군중장 조남진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대장 최영호동지, 대련합부대 정치위원인 항공군상장 손철주동지가 맞이하였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가 참가하였다.

지시를 구르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뮬레이션 불꽃을 뿜으며 푸른 하늘을 누비고 날아온 영웅한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켜보시는 앞에서



보아가며 하는것이 아니며 현대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비행사들이 높은 사상적각오를 안고 비행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싸움맛이 나게 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맡겨진 공중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유능한 전투비행사, 만능비행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훈련목표를 높이 세우고 훈련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전체 전투비행사들은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며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의도대로 강도높은 비행

여러가지 복잡한 공중전투비행동작들을 명심있게 수행하며 우리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평시에 면박받은 자기들의 조종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러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조작에 대한 관정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추격기들을 손바닥날리듯 자유자재로 조종하는데 정말 불만 없다고, 생소하고 불리한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조작도 정말 잘한다고 하시면서 검열비행훈련을 볼시에 조직하였는데 훈련이 아주 잘되였다고,

믿음직한 우리 당의 하늘초병들은 언제나 명명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의 훈련을 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것이 단 조국의 평공방위는 날씨와 시간을

훈련을 생활화해나감으로써 언제나 백전백승의 비행운만을 아로새기는 하늘의 결사대, 불패의 김정은비행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제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셔갈 총정의 한마음안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실장 리종혁은 조선혁명박물관을 태양조선의 대국보물로 꾸리는 사업에 적극 헌신하였으며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기술원 최현봉은 백두산 청년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청년전위답게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를 끝없이 빛내이는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주체사상교양의 전당,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할 일념밑에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최철진은 많은 자재들을 보내주었으며 부원 김은남도 성의있는 지원으로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대동강구역의봉사사업소 로동자 정소희는 수십년

간 만수대언덕에 올라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에 총정을 바친 부모들의 뒤를 이어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오리고기전문식당 로동자 황금별은 가정에서 마련한 물자들을 만수대혁명사적지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인민아외빙상장 로동자 김광심도 물심방면의 지원으로 조선혁명박물관구리에 펼쳐나선 돌격대원들이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맡겨진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열에서 참된 삶을 빛내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불멸의 꽃축전장에 뜨겁게 굽이치는 위인흠모의 열기

【평양 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개막된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이 편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에 떠받들려 주체 86(1997)년 2월에 처음으로 열린 김일성화축전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스무번째의 빛나는 년분을 아로새기고있다. 지난 기간 19차례에 걸쳐 해마다 진행된 김일성화축전에 33만여명의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수는 750여만명에 달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100여개의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축전이 개막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수십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이 축전장을 참관하였으며 17일 하루동안에만도 참관자수는 12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회세의 신군명장이시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어머니, 인류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따르는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순결무구한 도덕의리심의 숭고한 발현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불멸의 꽃축전장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수만산의 김일성화축들로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친 전시대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추켜들고 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인민군장병들의 결사의 의지가 어찌있는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

대전시대에서 참가자들은 협조한 철명과 오성산의 칼벼랑길, 총평사나운 초도의 배길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전신길이 어려와 반걸음을 쉬이 옮기지 못하였다. 이번 축전에 450상의 불멸의 꽃들을 전시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전시대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새로운 영웅전신화창조로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선물을 마련해나갈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자강혁명주의를 높이 들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력투쟁에서 눈부신 과학기술성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해나갈 우리 인민의 불타는 결의는 김일성총화대학, 국가과학원, 금속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경흥지도국, 삼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대들에도 차임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과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 친선단체들의 지성이 어린 김일성화축 바라

보며 참가자들은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세계정치천로 불세출의 위인이심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축전장을 참관한 해외동포들은 민족의대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어려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물론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애국총정의 내를 꿰뚫어 이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외국 손님들도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경모심이 얼마나 감명찬가를 잘 알수 있었다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화축는 태양의 꽃으로 영원토록 만발할것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민족의 어머니,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들의 열화같은 경모심에 떠받들려 위인칭송의 꽃바다는 백두산대국의 불명절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